

마음 다루기 텅 빈 가슴을 넘어서

‘나’는 지고의 경험에 압도당한다

| 오쇼 | 손민규 옮김 |

무(無)의 경험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어떤 승려가 남전에게 물었다.

「조사(祖師)에게 조사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대한 질문이지만 대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승의 현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범위내로 끌어들인다. 달을 끌어올 수 없다면 그림자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림자를 통해 달이 발견될 수 있다.

남전이 말했다.

「1, 2, 3, 4, 5이나라」

이 대답은 카비르(Kabir)를 생각나게 한다. 나는 남전과 카비르가 서로를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비르도 이와 똑같은 식으로 대답하곤 했다. 이것은 수수께끼처럼 신기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수수께끼가 아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암시하는 방법이다.

깨달음은 무(無)에 대한 경험이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일어나면 빛이 무(無)를 비춘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이다. 거기엔 빛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 다음 그대는 즉시 그 빛을 인식한다. 즉시 인식이 들어오고 그것은 둘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인식이며 아직 개념화되지 않았다. 그 다음, 그것을 깨달음, 각성, 또는 붓다의 경지로 개념화시킬 때 그것은 이미 셋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은 넷이 된다. 그 다음, 전해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다섯이 된다.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무(無)에서 멀어져 간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실체의 본성이다. ‘1, 2, 3, 4, 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다. 다섯 번째에 이르러 진리의 전승(傳承)이 완결된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옛사람의 것입니까」

‘옛사람(the ancients)’이라는 말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을 뜻하지 않는다. ‘옛사람’이라는 말은 의식(意識)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이 진정한 옛사람이다. 그들은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고대인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의 고대인이다. 시간 안에서 볼 때 그들은 그대와 동시대인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바로 그대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대는 깨달은 사람과 동시대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도달한 의식의 경지는 그를 까마득하게 먼 곳으로 데려간다. 그는 옛사람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었을 때 그를 옛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만 늙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붓다가 되면 그는 시간적으로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무르익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시간을 초월하여 삶의 근원에 도달한다. 고대의 모든 붓다들이 도달했던 그 자리에 도달한다. 그것은 똑같은 근원이다. 그는 고대의 모든 붓다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옛사람’이라는 말이 늙은 사람, 또는 옛날에 살던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항상 그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은 더 거대한 의식의 세계, 더 높은 정상에 도달

한 사람들을 뜻한다. 그들이 진정한 ‘옛사람’이다. 그들은 그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 그들을 그대와 동시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옛사람의 것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때 말해주마」

스승은 말한다. 그것이 그대나 고대인에 의해 소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지고의 경험에 이르렀을 때 그대는 그 경험에 압도당한다. 그대가 경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그대를 소유한다. 그대가 소유당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경험은 그대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 그대는 그 안에 흡수되고 만다.

남전이 말했다.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때 말해주마」

옳은 말이다.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소유될 수 없다. 그대가 그것에 소유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데 선(禪)은 그 문장을 완결시키지 않는다. 선은 모든 것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 둔다. 선은 다만 힌트를 줄 뿐이다. 이것은 그 문장을 완결시킬 수 있는지 질문자의 지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승려가 미심쩍다는 듯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승려가 말한다.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핵심을 놓쳤다. 스승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것이 스승을 소유한다. 그것이 스승을 소유함으로써 스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순수한 비어 있음이다. 존재계 전체가 그를 통해 지나갈 수 있다. 아무 장애물도 없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완벽한 수용성이 있을 뿐이다.

남전이 말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노행자(盧行者: 六祖)가 거짓말을 했다」

남전은 말한다.

「혜능은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내가 절벽 꼭대기에 서서 무(無)의 세계로 뛰어들고 보니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나는 진리에 소유 당했다. 나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경험은 실로 엄청났다. 나는 진리를 손에 잡을 수 없다. 오히려 진리가 사방에서 나를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거짓말을 듣고 싶다면 혜능에게 가라. 그는 내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대단한 존경심에서 나온 말이다.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진리가

나를 소유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만일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스승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진리를 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 어떤 방편을 제시하면 그대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

어느 집에 불이 났다. 집 안에는 어린애들 몇 명이 놀고 있었다. 밖에 사람들이 모여 소리 질렀다.

「애들아! 빨리 집 밖으로 나와라! 문과 창문에는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았으니 그곳으로 나올 수 있다. 몇 분만 지나면 나올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집 안으로 뛰어들 만큼 용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그때 시장에서 가게를 보고 있던 집주인이 막 달려왔다. 아이들은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나게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왜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아빠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말했다.

「아이구, 이걸 어쩌나!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오. 지금 모든 출구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소. 우리는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당신의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참 이상한 아이들이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고 있소. 불길을 보면서 즐거워한단 말이

지고의 경험에 이르렀을 때 그대는 그 경험에 압도당한다.
그대가 경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그대를 소유한다.
경험은 그대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 그대는 그 안에 흡수되고 만다.

오!」

이젠 집 안으로 뛰어들 입구도 없었다. 설령 뛰어든다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아이들 아빠가 소리쳤다.

「애들아! 아빠가 왔다. 너희들이 사달라고 떼쓰던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으니 빨리 밖으로 나와라.」

그러자 아이들이 막 불길에 휩싸이고 있는 창문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달려가 말했다.

「장난감은 어디 있어요?」

아빠가 말했다.

「미안하다, 애들아. 오늘은 아빠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내일은 꼭 사다주겠다고 약속하마.」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아이들 목숨을 구했다. 이 아버지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남전 역시 혜능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혜능이 거짓말을 한 것은 너무 자비로워서 그런 것이라고 남전은 말한다.

남전은 말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때...’라고 말한다.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말해주마.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를 소유하고 있으니 말해줄 수가 없다.」

승려는 남전의 말이 미심쩍게 들렸다.


아빠가 말했다.

「화상계서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당신이 진리를 얻었다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압니다.」

이것은 언어에 수반되는 문제이다. 승려는 '당신은 진리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만일 그가 '진리가 당신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남전이 말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대는 '진리를 얻었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내가 진리를 얻게 되면 말해 줄 것이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대의 말은 틀렸다. 거짓말을 한 것은 혜능이다. 그리고 내가 깨달아서 스승이 된 것은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혜능에게 가봐라.」(끝) 

- 이 글은 『텅 빈 가슴을 넘어서: 남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오쇼(Osho Rajneesh) | 오쇼의 가르침은 어떠한 틀로도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의 강의는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런던의 「선데이 타임스(Sunday Times)」는 20세기를 빛낸 천 명의 위인들 중 한 사람으로 오쇼를 선정했으며, 미국의 작가 탐 로빈스(Tom Robbins)는 오쇼를 '예수 이후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하기도 했다. 인도의 「선데이 미드 데이(Sunday Mid-Day)」는 인도의 운명을 바꾼 열 명의 인물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는 간디, 네루, 붓다 등의 인물과 더불어 오쇼가 포함되어 있었다. 오쇼는 자신의 일에 대해 새로운 인간이 탄생 하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했으며, 점점 가속화되는 현대인들의 생활환경에 맞는 명상법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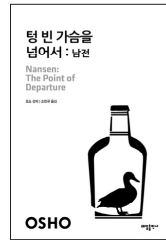
입하여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혁명적인 공헌을 하였다.

역자 | **손민규** | 1962년 생. 인도로 건너가 오쇼의 제자로 입문한 후 20여 년 동안 인도를 오가며 여러 스승들을 만나 교류했다. 특히 '유지 크리슈나무르티'와의 만남을 통해 큰 감화를 받았으며, 오쇼 문헌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인물로 알려진 '끼란지'와 12년 동안 친교를 나누며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명상서적 전문번역가로 일하면서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법구경』, 『금강경』, 『떠도는 자의 노래』, 『마음을 버려라』 등을 포함한 50여 권의 명상서적을 한국에 번역·소개했다. 현재 오쇼와 끼란지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하는 수행모임 '오스카'를 이끌고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텅 빈 가슴을 넘어서: 남전

저자 오쇼 | 역자 손민규 | 출판사 태일 | 정가 15,000원



이 책은 현대에 널리 알려진 정신적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오쇼의 입문서이다. 이 책은 대부분이 현대교였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의로, 현대의 깨달은 스승 오쇼가 고대의 선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전은 선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남긴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에 이르러 선은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대양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정신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하나로 받아들였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켰으며, 그 '함께 있음' 안에 비로소 전체성과 기쁨이 있음을 강조했다